

목포무안신안축협, 전남광주 으뜸한우경진대회 ‘석권’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제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으뜸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휩쓸며 한우 개량 사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13일 “지난 10일 강진완도축협 가족시장에서 열린 으뜸한우경진대회에서 무안군과 신안군 조합원들이 출품한 한우 5두 가운데 4두가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송아지 부문에서 정동일 조합원(무안군 일로읍)이 최우수상을, 미경산우 부문에서 정해중 조합원(무안군 일로읍)이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송아지 부문에서는 박현우 조합원(신안군 지도읍)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경산우 1부에서는 박광호 조합원(신안군 지도읍)이 수상하는

5두 출품 4두 수상 ‘최우수 축협’ 영예

정해중·정동일父子 나란히 최우수상

등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원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부자지간인 정해중 조합원과 정동일 조합원이 나란히 최우수상을 차지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한우 사육과 개량에 대한 오랜 노력과 기술이 세대를 이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동일 조합원은 으뜸한우경진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은 한우 사육 농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37회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38회 대회에서는 송아지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제42회 대회에서도

다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사육 기술과 한우 개량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축산 후계 세대인 정동일 조합원은 지속적인 품종 개량과 사양관리 노력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 대회 결과, 22개 시·군 가운데 무안군은 최우수상, 신안군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전남지역 축협 가운데 최우수 축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추진해 온 체계적인 한우 개량 사업과 조합원들의 사육 기술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지역 한우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무안신안축협 관계자는 “조합원 농가들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강진완도축협 가족시장에서 열린 전남광주 으뜸한우경진대회에 출품한 5두 중 4두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석권하며 한우 개량 사업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목포무안신안축협 제공>

의 끊임없는 노력과 축협의 체계적인 한우 개량 사업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우수한 한우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무안=김상호 기자



나주시는 최근 윤병태 시장 주재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영산강축제’ 최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영산강축제’ 성공 개최 준비 총력

시, 내달 개막 앞두고 최종 보고회

윤병태 시장 주재 전 분야상향 점검

‘행운소비복권’ 도입 경제 효과 극대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6 나주영산강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윤병태 시장 주재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최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 개막을 앞두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부터 관람객 편의시설, 교통 대책, 지

역 경제 활성화 방안, 현장 안전 관리까지 전 분야를 점검했다.

시는 쾌적한 관람 축제를 조성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거점과 축제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3개 권역으로 나눠 10분 간격으로 직행 운행한다.

또한 화장실과 그늘막, 쿨쉼터를 확대하고 휠체어·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중 밀집에 대비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현장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1일부터 11일까지 상점과 음식점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행운소비복권’을 지급,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원도심과 전통시장 전

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개막공연 ‘왕후, 장화’를 비롯해 영산강 별빛 소원배 띄우기, 안유성 명장의 미식 오케스트라 등이 펼쳐진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자니아 직업 체험, 전동카·RC보트 등 놀이형 콘텐츠, 첨단기술을 결합한 XR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성공적인 축제는 관람객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에게 기억되는 명품 축제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주영산강축제는 오는 10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주=정종환 기자

강진군, 행정 업무 ‘AI 활용’ 혁신 앞장

4년 전 전담부서 신설 구도로 지원

직원 72% 활용 ‘AI 전환도시’ 속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공직 사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선도하며 전국 지자체 행정 혁신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AI 활용 강화를 강

조하며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위한 별도 경비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군은 4년 전 과 단위 전담 조직인 ‘4차 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신설하고 첨단 기술의 행정 접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전 직원이 비용 부담 없이 최신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 계정 이용료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혁신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연구동아리를 운영하며 우수 팀에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47명의 공직자가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자격(AI-POT)을 취득하는 등 전문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이 같은 지원과 역량 강화 노력이 맞물리면서 현재 직원 약 72%가 별도 강제성 없이 일상 업무에 AI를 자율 활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들은 보고서 작성, 관광 시책 기획, 데이터 분석, 행정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등 행정 전반에서 눈에 띄는 업무 효율화를 이루내고 있다. /강진=박길중 기자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일제 점검·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13일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임대 농업기계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일제 점검은 이달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를 비롯해 남부·북부·동부 본소 등 총 4곳에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총 100종, 1천100여대에 달하는 농업기계 전반이다.

군은 기계 고장이 적기 영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사용 빈도가 높고 고장 우려가 큰 퇴비살포기, 원판쟁기, 보리베토기 등 주요 기종

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정비를 진행한다.

사전 점검을 통해 기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작동 상태 최적화와 고장 최소화로 전체 기계 가동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기계 고장이 작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사전 정비가 중요하다”며 “예방 점검을 통해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군 ‘돌봄 품앗이’ 최대 60만원 지원

21일까지 자조 모임 15개 팀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13일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해남형 여성친화 도레미 돌봄 품앗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 하나인 가족친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업은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긴급·휴일·저녁·방과 후 돌봄 등 공동 돌봄 활동을 펼치는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초등 돌봄 아동을 둔 3~5가구로 구성된 자조 모임이며 군은 심사를 거쳐

총 15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모임에는 구성원 간 자녀 돌봄 활동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3개월간 모임 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은 오는 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 가족행복과(061-530-5722)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까운 이웃과 돌봄을 나누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려 다채로운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해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16-20일 함평천지전통시장 점포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4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13일 “추석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함평천지전통시장(사진) 내 참여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결제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돌려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부문에서 각각 최대 2만원씩 혜택이 적용돼 1인당 총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은 물품 구매 후 신분증과 종이 영수증을 지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시장 내에 마련된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명절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30일까지 ‘진도군민의 상’ 후보 접수

공공복리 등 5개 부문...11월1일 시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13일 “제51회 진도군민의 날(11월1일)을 맞아 올해 진도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도군민의 상은 진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상 분야는 ▲공공복리 ▲교육·체육 ▲관광·문화예술 ▲복지·환경 ▲지역개발 등 총 5개 부문이며 각 부문별로 1명(단체 포함)을 선정한다.

추천 대상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다. 후보자 추천은 각 읍·면장이나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일반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추천 서류는 진도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군 총무과 서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오는 10월 중 심사를 거쳐 11월1일 제51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땀 흘려온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박세권 기자